

EWHA SAN FRANCISCO

OCTOBER 2024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Ewha, Shine
in the Golden State!*

WWW.EWHANA.ORG

SAN FRANCISCO AIRPORT
MARRIOTT WATERFRONT
OCT 24-27

이화
동창

— Table of Contents

SHINE in the GOLDEN STATE!	03
초대의 글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04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장	
축하의 글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05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06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이사장	
이화 소식	07
2023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후기	08
지회 소식	09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공문	21
동창회 장학금/기금 현황	22
연도별 총회 개최 지회/지회장 명단	23
2024 'Shine in the Golden State!' San Francisco 참가 신청서	24
2024 샌프란시스코 총회 일정 및 안내	26
광고/협찬	27



2024 북미주 지회연합회 고문
 오혜경(72 영문) 김명옥(75 경영) 김정희(79 약학)

2024 북미주 지회연합회 임원

회장 이영완(81 정외)
 부회장 이지은(96 불문) 총무 김영신(70 의직)
 제 1 서기 박명경(80 자수) 제 2 서기 최혜영(86 생미)
 회계 오유미(88 섬유) 홍보 서석영(94 정외)





Ewha, Shine in the Golden State!

2024년 샌프란시스코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배꽃 향기 날리는
교정을 걷던 우리들,
함께 모여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어 봅시다.

실리콘 벨리와 함께
세계의 기술의 허브, 미래를 책임지는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함께 미래를 펼쳐봅시다.

여러분 오세요.
추억과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지고 오세요.

이화인이여,
Shine in the Golden State!

북가주 지회 동창 일동

이화사랑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진

김영신(70 의직) 김영자(57 약학) 김초영(60 사생) 이영완(81 정외)
이해연(76 서양) 장선용(63 국문) 제갈숙경(79 관현)

선

강영자(64 기독교) 강희식(61 사사) 김영심(66 신방) 나효신(82 작곡)
마점옥(73 작곡) 박명순(62 영문) 박숙자(64 약학) 박옥희(51 약학)
심순이(66 정외) 오혜경(72 영문) 이병희(61 사사) 이성희(77 동양)
이순조(69 가정) 조미정(86 정외) 홍순찬(57 약학) 홍화자(65 약학)
김정진(클리블랜드 지회 72 의학)

미

김정숙(67 교육) 김정애(65 법학) 김정희(54 약학) 채애자(66 체육)
최충자(62 사회) 한정자(65 기독교)

사랑

김성숙(60 법학) 김신옥(69 약학) 민부기(63 도서) 박정연(73 간호)
이근희(62 기약) 장명순(62 가정) 홍순영(61 법학)

2024 북가주 지회 회보팀

발행인 이영완(81 정외)

편집인 윤영숙(65 불문) 오유미(88 섬예)
권영라(86 불교) 김연희(01 신방)
박명정(80 자수) 이윤선(86 교육)
장경혜(14 작곡)

디자인 김은경(94 간호) 양국희(00 동양)
박수현(04 동양) 이정화(81 조소)

초대의 글

존경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황금빛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특별한 자리에서, 'Ewha, Shine in the Golden State!'의 주제하에 과거에 빛나던 학창 시절을 회상하면서, 넉넉히 지켜오던 이화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멋지게 빛날 추억을 만드십시오.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화려하고 혁신적인 도시로, 특히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알려진 실리콘 밸리와 아름다운 해안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 안에, 골든 게이트 브리지, 피어 39, 알카트라즈 섬등의 명소로 유명하며, 문화적인 다양성과 개방적인 특성으로 빛나는 장소입니다. 올 가을에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총회는 그리운 벵들과 Napa Valley 에서 제조된 와인의 풍미를 맛보는 시간, 그리고 나른한 오후에 화려한 머리장식인 Fascinator를 머리에 얹고 우아한 귀부인이 되어,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며 다과와 담화를 즐기는 Afternoon Tea Party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현동의 재학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노래와 춤이 어울어진 싱어롱 시간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학창시절의 향수로 젖어들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하는 2024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잔치에 오셔서,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서 반짝이는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가는 길목에서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이영완 드림



이영완(81 정외)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존경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말 보스턴에서 열린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느새 2024년 총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총회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아름다운 단풍과 따스한 날씨를 선물로 받아 동창 여러분들께서 보스턴의 가장 멋진 모습을 보시고 가실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참석하신 동창들의 따뜻한 사랑과 화합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이 웃으며 "이화 화이팅"하던 그 외침! 새로운 만남과 그리운 만남들이 어울어져 흐드러지게 핀 배꽃처럼 환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창회를 통해 모교의 발전 소식, 그리고 미래의 비전과 계획을 듣는 것은 모교와 동창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연결 고리가 된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였고, 또한 전혀 모르는 선후배가 함께 모여 이화라는 공통 분모 하나로도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열고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매년 총회를 통해서 동창들의 삶이 활기를 얻고, 이화의 진선미 정신을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며,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더욱 참여하게 되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황금의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24년 총회를 'Ewha, Shine in the Golden State!'란 슬로건을 걸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스러움과 최첨단의 기술이 공존하고, 해변의 아름다움, 명문대학들과 Winery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총회를 한껏 기대해 봅니다. 이영완 회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하시는 샌프란시스코 지회의 수고와 섬김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도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셔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인 이화 동창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또한 모교를 향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정성껏 후원도 하시고,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 동창들이 준비하는 귀한 잔치의 장에서 우리 함께 많이 많이 행복하십시오!



김지영(82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장

축하의 글

사랑하는 북미주지역 동창 여러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제17대 총장 김은미입니다.

2024년 새해에도 이화를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이화가족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장 힘차고 용맹스러운 푸른 용의 해 갑진년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에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이화는 동창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에 힘입어 크게 도약했습니다.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Frontier 10-10 사업으로 최우수 연구진과 연구 환경을 갖추고, 연구비 수주액이 3년 사이에 지난 10년에 비해 3배 이상 올랐고, 대학원 등록률은 94%대에 안착하며 연구생태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은 그간의 창업 지원 역량을 인정받아 2023년 종합형 사업까지 선정되어 4년간 60여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대학과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설립 등 첨단분야의 연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 방식에 대한 혁신도 병행하여 이화형 교육모델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융합형 교육, THE BEST 모델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부의 개정 법률에 따라, 엄격한 경쟁을 뚫고 수도권에서는 4개 대학만이 선정된 가운데 본교도 30명의 정원을 순증할 수 있었습니다. Ewha West Campus 및 이화첨단도서관(가칭) 등 신축 계획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사업과 계획들이 보다 건전한 재정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화의 성과에 대한 동창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작년 보스턴 총회에서 느낄 수 있어 감동이었고, 감사했습니다. 헌신과 사랑에 뿌리를 둔 이화의 시작에 대한 믿음을 나누며, 이화가족으로서의 책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화는 올해 'Ewha West Campus'와 '이화첨단도서관(가칭)'을 중심으로 창의와 혁신이 꽃피는 첨단 미래 캠퍼스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생활환경관은 서쪽 영역을 아우르는 미래 교육 플랫폼 'Ewha West Campus'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약 19,000평 규모로, 창의 연구 생태계와 최첨단 교육·학습, 창업·산학의 공간은 이화의 미래뿐 아니라 앞으로 대학의 발전 방향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캠퍼스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화 최초의 도서관인 헬렌관은 건축 당시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디지털 혁신을 담은 뉴미디어 기반의 '이화첨단도서관(가칭)'으로 재탄생합니다. 신축되는 도서관은 현재의 중앙도서관과 내부에서 3개 층이 연결되어 중앙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이화 구성원의 학습·연구 수월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 이화는 언제나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화는 앞으로도 학문 간의 장벽을 넘고, 산업과 협업하여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대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이화의 앞으로의 여정에도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북가주지회의 초청 메시지 'Ewha, Shine in the Golden State!'처럼 이화의 이름으로 모두가 빛나는 날이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기도드리며, 아름다운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곧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81 사회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2024 북미주 지회연합회 샌프란시스코 총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믿음의 선후배들이 일궈가는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아름다운 행보

사랑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선후배 이화 동창들께 문안을 드립니다.

모교 창립 138 주년과 총동창회 창립 116 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샌프란시스코 총회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인사의 글을 적다 보니, 지난 해 북미주 지회연합회 보스턴 총회에서의 의미가 있었던 순간들을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북미주 곳곳에 흩어져 이화의 정신을 근간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소명을 열심히 감당하던 이화 동창들이 서로에 대한 그리움으로, 또한 모교와 동창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한 자리에 모여 청년시절 '이화 동산'에서 누렸던 시간을 추억하며 행복해 했던 역동적인 나눔의 잔치가 바로 어제 열렸던 것 처럼 친밀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2024년 10월에 개최될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의 모든 일정 또한 누군가에게는 위로로,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되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선사될 것을 생각하니 어느새 가슴이 따뜻해지고 설렙니다.

이 행사가 이화 선후배 동창에게 또 하나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힘써 수고하고 계실 샌프란시스코 지회의 이영완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섬김을 축복하며, 지면으로나마 깊이 머리 숙여 감사로 전합니다. 총동창회는 지난 해 11월 '이화인의 밤'으로 한 해를 순전히 갈무리하고, 올해에도 여상히 '3월 총회'를 시작으로 연례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샌프란시스코 총회에서 뵈을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과 은총의 빛이 사랑하는 이화 동창 선후배들이 나아가는 삶의 여정에 늘 함께 하시고, 그 길을 환히 비추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명경(77 무용)
이화여자대학교
제 19대 총동창회장

Ewha Sisters, Come Shine in the Golden State!

Welcome to the vibrant city of San Francisco!

Come shine as brilliantly as you did at Ewha and continue to illuminate wherever your path takes you. Let us celebrate the remarkable Ewha Womans University, now recognized as the most outstanding women's university globally.

Let us hear from President Kim articulate her vision for Ewha's future and from accomplished alumnae making a daily impact in their leadership roles.

The year 2024 is shaping up to be another outstanding year for the Foundation and I am grateful for the Foundation's continued collaboration with outstanding alumnae; all as a result of the time spent last year with the Vision Committee propelling us even greater achievements in the future. With the Global Hope Fund, the Foundation has broadened scholarship initiatives, supporting Ewha in maintaining its far-reaching strive. The campus and the world witness ongoing transformative learning and futuristic developments.

We eagerly look forward to reuniting this coming fall in San Francisco, where the spirit of Ewha will shine brightly. Together, let us continue to uphold, empower, and support the vis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Bishop Mary Ann
Swenson,
President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Inc.



학관 리모델링 및 신축 봉헌식 개최

2023년 8월 30일(수) 본교 학관 앞 광장에서 ‘학관 리모델링 및 신축 봉헌식’이 열렸다. 이날 봉헌식에는 장명수 이사장, 김은미 총장, 장상·김혜숙 전 총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등 교내 인사와 최창걸 고려아연(주) 명예회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정무경 ESG위원장, 유종근 경원문화재단 이사장, 정소영 흥한재단 이사장 등 기부자,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교외 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은미 총장은 “학관 리모델링과 신축 모금에 참여한 1,400여 분의 동참과 교내외 기부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관에서 많은 학문적 교류와 진리의 탐구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어 장상 전 총장은 “이화의 역사와 전통, 미래 비전과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따스한 배려와 동문들의 참여가 모여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위한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했다는 것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고 축사를 전했다. 새로 조성된 학관은 연면적 약 1만 7천 640㎡(5,335평)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농구 등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홀과 유연학습공간, 개방형 컴퓨터실습실, 400석 계단형 강의실, 스마트·첨단 강의실 등으로 구성돼 인문학적 상상력과 첨단 기술이 만나는 21세기형 학습공간으로 거듭났다.

이화를 찾은 노벨 석학과 글로벌 리더들

본교는 노벨상 수상 석학들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글로벌 리더들을 초청해 이화인들과 함께 지식의 지평을 넓혔다. 2023년 6월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헤라르뒤스 엠토프트(Gerardus 't Hooft) 교수가 본교를 방문해 'Beyond the Textbooks : Where did the quantum come from?'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평생을 과학 탐구와 환경 보존에 헌신하며, 특히 역사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과학 분야에서 여성으로서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 온 제인 구달(Jane Goodall)이 2023년 7월 본교에서 명예이학박사학위를 수여하기도 했다. 9월에는 현대물리학 최고의 석학으로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조지 스무트(George F. Smoot) 교수가 '오늘날의 우주론(Cosmology Today)'를 주제로 강연했다.

스무트 교수는 2008년 본교 석좌교수로 초빙되었으며, 우주의 탄생 원리와 과정을 연구하는 본교 초기우주과학기술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2009년부터 5년간 재임한 바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프랑스 소설가 르 클레지오(Jean-Marie Gustave Le Clezio) 또한 석좌교수로 몸 담았던 이화를 다시 찾아, '나의 수도자 오두막의 추억'을 주제로 강연하며 한국 문학과 이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12월에는 국제 통화기금(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Kristalina Georgieva) 총재가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Bridging Gaps & Building Sustainable Future)'을 주제로 김은미 총장과 대화를 가지기도 했다.



2023년 보스턴 총회를 마치고

2023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김지영(82 교육)

2023년 보스턴 동창회 주최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Newton Marriott Hotel에서 18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본교의 김은미 총장과 이명경 총동창회장, 박민정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하여 발전하는 이화여대의 비전과 새시대를 향한 계획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Swenson 국제재단 이사장이 김은미 총장에게 국제재단 장학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재휘 보스턴 총영사의 축사와 하버드대학 석지영 교수의 기조 연설이 있었습니다. 동창 음악인으로 구성된 트리오 연주와 피아노 연주, 오픈 솔로 송 등 아름다운 음악이 만찬장을 가득채웠고, 참가한 각 지회(토론토, 시애틀, 대뉴욕, 남가주, 보스턴)에서 정성껏 준비한 멋진 탤런트 쇼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뉴욕 지회 남후남 동창은 정년퇴직 후 배운 선비 춤을 공연하였고 보스턴 지회 김홍혜 동창의 평생작인 실크염색 패션쇼가 동창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영상으로 남았습니다. 한나리 동창의 재치있는 레크리에이션 진행으로 밤이 깊어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가 되어 신명나게 어울렸습니다. 보스턴의 멋과 역사, 예술을 볼 수 있는 일일관광과, 미술, 음악, 인종문제, 요가 등 다양한 주제의 일일클래스도 열렸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주일 예배에서 몽골 선교사인 김윤자 동창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화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지 또 어떤 사명을 받은 자들인 지 확인하고, “받은 귀한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리라!”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서로 열싸안고 서로를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함께 이 일을 해 오신 분들의 수고와 땀과 정성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화를 시작한 귀한 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가슴에 안고 삶을 개척하며 정진하는 열정적인 이화인들! 어느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진선미의 정신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이화여대 동창회의 일원이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보스턴 총회에 참석한 동창들 그리고 가족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등록은 하셨지만 못 오신 동창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준비 과정에 주신 모든 격려와 후원, 그리고 함께 수고한 지회장님들, 운영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지난 3년간 손에 손을 잡고, 수고와 헌신 그리고 인내의 길을 함께 걸어 온 우리 보스턴 지회 임원들, 동창들 그리고 이화사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회 소식

Atlanta — 지회장 차희숙(77 체육)

애틀란타 지회는 2024년 1월 14일 한식당 청담에서 총회를 가졌는데 43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가 더 번창해서 동창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며 건강과 축복을 위한 새해 첫 기도로 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22대 회장으로 차희숙(77 체육) 동창이 선출되었다. 새로운 회원으로는 차은경(18 언론홍보영상) 동창, 김솔비(17 정의) 동창이 참석했고, 1월에 생일을 맞은 조성숙(64 가정관리) 동창, 최복희(73 성악) 동창, 김원숙(68 생활미술) 동창, 김경원(81 가정관리) 동창을 축하하면서 화목한 시간을 보냈다.

2018년 Covid19 이후 잠시 중단되었던 이사회는 2024년 1월 부터 37명의 이사들과 함께 재개하게 되었다.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우리 지회가 더 활발하고 의미 있는 모임이 되도록 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단체사진 촬영 후 폐회하였다.



Baltimore — 지회장 이진숙(70 식영)

2023년 11월 15일 볼티모어 지회는 '옛날 옛적에' 음식점에서 동창 모임을 가졌다.

처음으로 22명의 많은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참석한 대학원에 재학중인 젊은 동창과 그 외 새로 나온 동창의 소개 순서가 있었고, 모교에서 건립중인 첨단 시설의 도서관과 Ewha West Campus에 대한 소개 및 후원 안내, 그리고 이화 국제재단 해외 기부에 대한 참여 안내가 있었으며, 매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에서 보내오는 빨간 동창 수첩도 나누어 가졌다. 또한 가족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처음 참석한 동창들과도 어느새 친숙해졌다. 감기로 참석하지 못하신 홍경주(62 약학과) 동창께서는 점심 식사 비용을 담당해 주셨고, 손수 뜨개질하여 만든 도토리 작품을 모두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 만남, 사랑, 나눔이 함께한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작년 7월 부터는 누구나 배우기 쉽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라인댄스 모임을 만들어 매주 금요일에 모여서 배우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이용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 어렵지 않은 몸 동작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 동창들의 참여도가 높다. 지회장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대 동창들로 시작했지만 지역 주민 모두에게 오픈하여 지역 사회에 봉사하게 되어서 더욱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라인댄스는 암기력의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우리 동창 모두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다.

Boston — 지회장 공정원(83 영문)



보스턴 지회는 2023년 성탄절에 지역사회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House of Mercy Lawrence 홈리스 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달했다. 피자, 샐러드, 디저트 등을 대접하며 최신자(86 성악) 동창의 아름다운 특송과 최은실(98 피아노) 동창의 피아노 연주로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었고 김지영(82 교육) 동창의 게임 진행으로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김성실 강사의 '타 인종과 함께 사는 Noblesse Oblige(노블레스 오블리주)'는 12월 연말 모임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다뤄졌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불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로서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 워크샵에서는 미국 사회의 인종 차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고찰해 봄으로써 다민족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훌륭한 교육의 혜택을 받은 Noblesse 로서 타인종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S. California — 지회장 조혜진(89 장식미술)

2023년 엘에이 남가주 지회는 LACMA 모임과 김은미 총장님의 Building Bridge Award 수상을 시작으로, 3월에는 튀르키예 지진 성금 1만 불을 모금하여 국경 없는 의사회에 전달하였고, 4월에는 김주경(77 관현악) 전 이사장 댁에서 한의사이신 남궁봉일(81 체육) 현 이사장의 공진단 클래스를 열어 회원들이 직접 공진단을 만든 후 구입하는 행사를 통해 장학기금을 만들었다. 6월에는 매년 지원하고 있는 LA 지역의 여성 자원봉사 단체인 KAWA 연례회의에 임원과 이사진이 참석하여 지속적인 후원을 하기로 하였고, 8월에는, 이제는 남가주 동창회의 전통이 된 Hollywood Bowl에서 피크닉과 음악회가 열렸다. 지난 해에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연주로 그 어느 때 보다 관람의 열기가 뜨거웠으며, 단체 관람 티켓과 도시락을 함께 판매하여 한여름 밤의 음악회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었다. 9월에는 골프 부 주관 골프 대회가 열렸는데 동창 및 지인들의 참여로 기금이 모아졌다.

11월에는 합창부의 연례 콘서트가 있었고, 12월 첫째 주에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남가주 동창회 연말 파티가 열렸다. 2022년 연말 파티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로 대체되었으나, 지난해 연말 파티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열렸던 엘에이 공항 부근의 힐튼 호텔에서 130여 명의 동창이 참여한 가운데, 바이올린 연주, 합창 공연 및 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 가운데, 정현숙(87 체육) 지회장의



이임사와 신임 조혜진(89 장식미술) 지회장의 인사의 말씀이 있었고, 5명의 동창 자녀에게 매년 남가주 동창회 장학 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올해 1월에는 신임 회장 및 임원진, 그리고 전체 단체장이 모여 지난해 활동 내용과 신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고, 3월 2일에는 동창 및 현지 남가주 주민을 위해 LA에서 음악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모인 기금의 일부는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현재는 본교 음악대학의 2025년 100주년과 관련하여 올해 12월에 계획된 행사를 위해 준비 중이다. 한편, 국제 재단에 남가주 지회 이름으로 7천 5백 불의 장학금과 Summer School 장학금 7천 불을 지급하였고, 본교에는 이화 West Campus 프로젝트로 5만 불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8만 불을 국제 재단에 남가주 장학 기금으로 적립하였다.

N. California — 지회장 이영완(81 정의)

2024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개최지로 선정된 북가주 지회는 2023년 3월, 총회 준비위원장으로 이영완(81 정의) 동창을 임명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총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 해 4월에는 개최 장소 선정을 위해 다수의 호텔 견적서를 비교하고 검토한 결과, 5월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 근처 Burlingame 시에 위치한 Marriott Waterfront Hotel과의 계약이 성사되었다.

이후 곧바로 총회 준비와 진행을 위한 다양한 팀이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모금팀은 지난해 8월 몇몇 동창들이 각각 3천 불씩 종자돈을 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단 없이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편집/디자인팀은 동창들

에게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고자 올해 5월 회보 발행 및 배송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냈다. 또한 이번 총회가 참석하는 모든 동창들에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감동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하루도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나누며, 총회가 열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는 가운데, 차세대 동창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 총회 준비를 위해 바쁜 와중에도, 북가주 지회 동창들간에 좀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매달 첫째 토요일의 월례 모임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2월과 3월의 월례 모임에는 평소보다 많은 40명에 가까운 동창이 참석하였는데, 2월에는 모두가 한 번쯤은 관람해 봤음직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한 부분을 함께 관람하고 영화와 관련된 뒷 이야기를 나누며 옛날의 감흥을 더듬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모임에 흥을 더하기 위해 '예쁜 신발 콘테스트'를 열어 치열한 경쟁 속에 1, 2, 3 등을 가려 상금을 수여하고, 수상자는 즉석 'Walking Show'를 연출하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3월에는 '임영웅과 함께 하는 점심 식사' 시간으로 기획하여, 식사하며 임영웅 쇼 비디오를 관람하고, 동창들이 '만남'과 '친구여'를 함께 부르며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더욱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에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북가주 지회는 이화인으로서의, 그리고 북가주 지회 동창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위해 서로를 응원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Cleveland — 지회장 허선우(04 회화판화)

클리블랜드 지회는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매달 한 번씩 꾸준히 소중한 만남을 가지고 있다. 클리블랜드 이화 만남은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지난 달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음 달에 대한 계획을 함께 나누며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클리블랜드 동창들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만들어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클리블랜드 클리닉 부교수이자 혈액 병리 전문의이며 아마추어 피아니스트로도 활약 중인 전희선(88 의학) 동창은 2023년 병원 초대로 병원 직원을 위한 피아노 콘서트를 현악 5중주와 함께 개최하였고, 2024년 1월에는 캘리포니아 콘체르트 페스티벌에 초대되어 오케스트라와 함께 성공적으로 그릭 피아노 협주곡(op.16) 협연을 마쳤다. 이 음악회 영상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전희선 동창의 실력과 노력에 참석자 모두 감탄을 하였다.

올해에도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자녀를 위한 단체인 Center for Domestic Violence 와 Womankind에 대해 지원을 하였고, 국제재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교에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모교된 후원금을 도서관 신축을 위한 기금으로 보내어 모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Denver — 지회장 김선희(94 문헌정보)

덴버 지회는 2023년 2월 4일 신년 총회를 개최하여 떡국을 나누면서 답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덴버 지회는 매년 설날 즈음 떡국을 나누면서 첫 모임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연말 회계 결산 보고와 새해 행사 계획을 발표했고,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 대한 대략적인 브리핑과 이사회 가입 신청도 접수하였다.

2023년 8월 여름 모임에서는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최미세(69 교육학) 동창이 보내온 기부금과 손 편지 내용을 공개하고, 예전에 있었던 동창회 모임에 대한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소식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12월 초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모임을 가졌는데, 특별히 이 날은 모교에서 보내온 수첩과 달력, 그리고 회장단에서 정성을 담아 준비한 작은 선물을 참석한 동창 모두에게 전달하였고, 모교의 역사와 북미주 지회 연합회의 활동에 대한 퀴즈를 게임으로 만들어 이화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덴버 지회에 등록된 동창은 약 50여 명 정도이나, 모임에는 보통 15~20 명의 동창들이 참석하며, 1960년 졸업 동창부터 2018년 졸업 동창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동창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 동창들의 동창회 참여도가 두드러지게 늘고 있는데, 이는 회장단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된다.

덴버 지회 회장단 교체는 2024년도 떡국 모임에서 이루어졌는데, 새 회장단으로는 회장 장문선(94 도예), 총무 이후원(91 가정관리), 회계 강윤희(01 신문방송) 동창으로 앞으로 2년 동안 덴버 지회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Detroit — 지회장 오주리(82 섬예)

2023년 6월 3일 아름다운 초여름 날 동창회가 열렸다. 1부 순서로 오주리(82 섬예) 회장의 개회 인사에 이어 임원들의 소개가 있었고, 서기를 맡고 있는 이지현(96 사학) 동창이 사회를 진행하였다. 2021년 북미주 총회 때 촬영한 동영상에서 동창들의 대학 시절의 풋풋했던 사진들을 감상하고 교가 제창을 한 후, 이명주(95법학) 회계의 전년도 회계 보고 순서가 이어졌고, 그런 다음 참석자 32명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음식을 나누며 그간 살아온 소식으로 이야기 꽃을 피웠다. 2부가 시작되어,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이경혜(73 사회생활) 동창에 대한 축하의 시간이 있었고, 이어 오주리 회장이 회칙 개정에 대한 취지와 관련 설명을 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 회칙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2023년 11월 18일에는 조금 이른 송년회를 가졌다. 동창의 배우자 11명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 이 배우자 분들께서 처음 만나는 유학생 후배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기도 하였다. 1부는 서기 이지현(96 사학) 동창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오주리(82 섬예) 회장의 개회 인사 후 이영숙(70 약학) 현 이사장과 새해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박혜현(72 생미) 이사장의 인사가 있었다. 차승순(70 기약) 이사가 2023년 보스턴 총동창회에 다녀온 이야기를 나누는 후, 동창회의 대선배이신 홍영희(57 영문) 선배께 선배님 대신 언니라고 불러 모임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주었다. 홍영희 동창께서는 구순이 되어서 내년에 축하의 자리도 마련해 드릴 계획이다. 기념 촬영에 이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는 양효주(20 환경공학) 동창과 이수정(21 환경공학) 동창이 처음으로 참석하였고, 미시간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후배들이 매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이화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를 보여 주고 있다. 2부 순서는 이종은(96 과학교육) 동창의 진행으로 게임이 이어졌는데 상품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부 순서 후, 다음 해 봄 동창회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송년회를 마쳤다.

Houston — 지회장 양영희(93 조소)

2023년 12월 휴스턴 지회에서는 이영일(72 의류직물) 동창택에서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겼다. 또한 작년 4월부터 시작한 '미술산책 Promenade Artistique'은 문화채(72 영문) 동창택에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에 열리는데, 양영희(93 조소) 동창의 미술사 강의와 함께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며 선후배 간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으며, '이화 북클럽'은 이지민(81 건교) 동창이 이끄는 가운데 매년 꾸준히 책을 읽어 나가고 있다.



2024년 2월 9일에는 '휴스턴 이화 구정 대잔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휴스턴에 살고 계시는 한인 어르신 분들을 모시고 동창들이 정성을 다해 직접 만들어 준비한 140 인분의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국에 계시는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뭉클한 순간을 경험했다. 이 자리에는 정호명 휴스턴 총영사도 참석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2024년 5월에는 지역 장학금 수여식과 Life Tree Ministry에 대한 1,200불 기부 및 모교의 국제재단 후원도 계획되어 있다. 많은 휴스턴 이화동창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항상 새 힘을 얻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Illinois — 지회장 서석영(94 정외)

우선 일리노이 지회가 탄생되기까지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북미주 지회연합회 선배님들과 모교 이명경 총동창회장님 이하 임원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7월 29일 창립 총회가 개최된 후 12월 17일 정식 인준이 되기까지, 일리노이 지회는 그야말로 숨가쁜 한 해를 보냈다.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Brown Bag Lecture 시리즈를 개최하였고, 3월에는 Afternoon Tea와 벵룩시장으로 즐거운 봄을 맞이했다. 또한 5월 20일에는 Montrose Park에서 바베큐 행사가 진행되었고, 10월 1일에는 Wicker Park에서 피크닉 행사가 개최되어 많은 동창들이 가족과 함께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간 일리노이 지회 임원진과 이사회는 로고와 배너 제작, 웹사이트 및 SNS 계정 업데이트, 도메인 구입, 비영리 단체 등록과 은행 계좌 개설 등 지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분주히 추진해왔다. 특히, 2024년 2월 17에는 총력을 기울여 준비한 첫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지역 동창들은 친목 도모 및 재원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지회 구성원 동창들의 친목과 교양 및 후원 활동을 위해서 야외 가족모임, 온라인 강의, 멘토링, 장학사업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회 행사와 활동 소식은 지회 웹사이트 www.ewhaillinois.org 와 각종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nesota — 지회장 김정은(90 체육)

2024년 2월 17일 한명자(67 국문) 동창 외 13명이 새해 설날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Jang-mi Arts를 통해 왕성한 한국 문화를 소개해 온 한지인(Brook Newmaster) 씨가 특별 게스트로 참석해 입양 역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었고 지난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Jang-mi Arts에 대한 정기적인 후원과 9월 한국 문화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미네소타 한인회에 대한 후원을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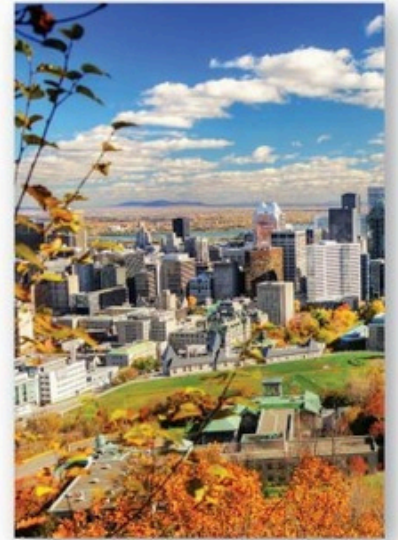
미네소타 한인회는 지난 해 9월 30일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소재한 Mall of America에서 한국 문화 축제를 개최하였다. 시카고 영사관 John Choi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미네소타 K-Pop 댄스 그룹인 MKDC와 Jang-mi Arts의 화려한 전통 무용 등이 공연되었는데, 여기에는 한진혜(74 제약) 동창을 비롯해 6명의 동창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다.



Montreal — 지회장 김명원(92 수학)

지난 해 12월 9일 몬트리올 이화 동창회가 부부동반으로 총 20명이 모인 가운데 백희준(84 수학) 동창 자택에서 열렸다. 이번 동창회에서는 졸업 50 주년을 맞는 임명애(73국문) 동창이 선물과 함께 모두의 축하를 받았고, 6년간 한국에서 지내며 공부한 동창 프리양카 심란(Simran Priyanka, 18 경영학·국제학)은 오랜만에 새로운 동창으로 참석하여 모두에게 환영을 받았다.

기념식과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른 교가는 우리들을 학창시절로 돌아가게 하였고, 임명에 동창의 남편 김창익 장로께서 식사기도를 한 후 정성스레 준비된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 동창들은 오랜만에 각자 자기소개, 학창시절의 추억, 졸업 후 경험과 몬트리올로 오게 된 계기 등을 얘기하며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화기에애한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에는 항상 위트로 웃음꽃을 선사하는 이채화(76 무용) 동창의 진행으로 행운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나눠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동창들을 위한 포인세티아 화분, 그리고 매 마칩 도착한 총동창회에서 보내온 동창수첩과 달력 덕분에 모임이 더욱 따뜻할 수 있었다. 또한, 몬트리올 지회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올해도 몬트리올 어린이 병원에 기부를 하였다.



New York — 지회장 김영신(88 독문)

2023년 59주년 기념 연례 만찬

대 뉴욕 지회는 2023년 10월 15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59주년 기념 연례 만찬을 열었는데 이화 졸업생과 이화의 사위 등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광장, 지금 우리!'라는 제목으로 각자의 꿈과 한 해의 소중한 순간을 나누었다. 취업에 대한 20대 동창의 꿈으로부터, 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이화 연례 만찬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는 원숙자(58 가정) 동창의 꿈을 나누며 여러 세대의 이화인이 화합하는 시간이 되었다.

회장단 이취임

1월 정기총회에서는 신·구회장 이취임 및 새로운 임원단 발표가 있었는데 김영신(88 독문) 동창이 회장으로로서 새로운 임원단과 함께 2024년-2025년 대 뉴욕 지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신년 하례식

2024년 2월 3일 설을 앞두고 맨하탄 '반주' 유니언스퀘어 지점에서 떡국을 나누며 신년 하례식을 진행했다. 약 90명의 동창이 참석했으며, 특별히 50년대에 졸업하신 이해경(50 음악), 장혜원(50 약학), 이희명(59 사학), 백낙정(59 피아노) 동창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 자리에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외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20-30대 동문의 커리어 발전을 위한 선후배 간의 네트워킹도 이루어졌다.



Ottawa — 지회장 황명희(93영문)



역대 최대 송년회

20년 남짓 되어가는 오타와 지회는 2023년 12월 16일 박은경(85 장미) 동창 자택에서 송년회를 가졌는데, 팬데믹 이후 자주 만나지 못했던 많은 회원들과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다. 18명의 동창들과 동반 가족까지 포함하여 어른 31명, 자녀 11명으로 총 42명이 함께한 역대 최대의 모임이었다. 특히 송년회 때 동창회에 처음 오게 된 김혜영(99 심리학) 동창과 몇 년 만에 한국에서 오타와를 방문한 이전 오타와 지회 회원이었던 박성숙(87 관현악) 동창과의 만남은 송년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거의 매년 송년회 장소로 숲 속에 있는 자택을 제공하는 박은경(85 장미) 동창이 이번에는 멋진 포토존까지 마련해 연말의 분위기를 한층 돋우었고, 각자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디저트, 음료를 즐기며 훈훈한 정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2023년 한 해 각자에게 와 닿았던 이야기를 하는 키워드 '1분 스피치' 시간에는 많은 동창들이 '나이 들'과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 각자가 속한 가정, 사회의 여러 분야, 그 밖의 다양한 공동체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과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는 우리 동창들이 무척 자랑스러웠고, 대 선배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이 들'은 단지 힘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서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다. 모임 후 지회에서 준비한 떡국 떡과 아이들을 위한 한국 과자 선물 가방을 갖고 돌아가는 뒷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이화의 개교기념일이 있는 5월에는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화 밖의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국여성재단'에 기부금을 보낼 예정이다.

Philadelphia — 지회장 조경숙(81 의과)



필라델피아 지회는 2023년 12월 3일, 늘 후배들에게 믿음과 삶의 본이 되어 주시는 김영애(62 국문) 동창 댁에서 크리스마스와 송년모임을 가졌는데, 이 날은 이화 사위 6명을 포함하여 30여 명이 모여 미국 땅에 이화 동산을 재현한 하루였다. 양경자(65 성악) 동창의 지도 하에 매주 만나 열심히 준비한 이화 필라 중창단의 아름다운 연주가 성탄절을 맞는 기쁨을 고조시켜 주었고, 싱어롱 시간에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 노래를 불렀다. 애찬 후 김선주(72 국문) 동창이 사자성어 게임을 재미있게 이끌어 주었는데, 이번에도 대상은 오경희(84 사회생활) 동창이 수상을 했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1년간의 활동과 회계 보고가 있었고, 2년간 수고하신 오

성실(68 영문) 회장의 후임으로 조경숙(81 의과) 동창이 선출되었다. 온 동창이 이화로 인해 하나된 따뜻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축하하며 모임을 끝냈다.

2024년 2월 3일에는 새해 첫 동창회가 뉴저지 체리힐에서 열렸는데, 뉴저지 동창들의 많은 참여로 총 21명이 모였다. 정천혜(69 약학) 동창의 기도로 시작된 모임은 올해 임원진인 회장 조경숙(81 의과), 회계 박윤옥(75 간호), 총무 정혜진(00 현대무용) 동창의 각자 소개가 있는 후, 오성실(68 영문) 전 회장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애찬 후에는 상반기 모임 계획과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준비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동창회 발전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많은 동창들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고, 임원진은 이 의견들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3월에는 젊은 동창들을 위한 소모임이 시작되었고, 4월의 2차 정기 모임은 Longwood Garden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기'란 제목의 강의가 진행된 후에, 봄꽃을 구경하며 모두가 사진사가 되어 보기도 했다.

Portland — 지회장 한나리(92 체육)

포틀랜드 지회에서는 2024년 1월 25일 신년 모임을 가졌는데, 갑작스러운 독감으로 불참한 동창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12명의 동창들과 함께 그간 지내 온 이야기, 다녀온 여행 이야기, 병환 중에 계시는 선배님 소식 등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정초에 폭설로 인해 일주일간 정전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피해입은 동창이 없어서 모두 한마음으로 감사했다. 이 지역은 언덕길이 많아서 폭설을 알리는 일기예보를 들으면 많은 양의 음식을 사다가 냉장고에 미리 준비해 두며 비상용으로 가정마다 제너레이터를 구입해 놓는 등 악천후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이번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신임 회장 선출이었는데, 10년동안 봉사했던 김미진 회장이 퇴임하고, 후임 회장으로 한나리(92 체육) 동창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한나리 회장은 올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서 MC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6월 Rose Park 피크닉, 9월 사과농장 방문, 12월 송년모임 등을 계획하고 있다. 포틀랜드 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

Seattle — 지회장 이재경(80 과교)



시애틀 지회에서는 매년 워싱턴주립대학 (U of W) 한국학 재학생 한 명에게 1천 불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장학금을 받은 대학원생 Luice Olson이 감사편지를 보내오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어려운 한인을 돕는 기금으로 한국일보에 2천 불을 기부하였다. 이 성금은 박명호(78 정외) 동창이 1년에 두 번 개최한 음악 강의를 통해 마련한 것인데, 올해에도 4월과 10월에 쇼팽과 브람스에 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이외에도 한글 학교에도 기부금을 전달함으로써 이화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해 송년회에는 동창과 가족 70여명이 참석하여 성탄을 축하하고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이재경(80 과교육) 동창이 2024년 신임회장에 선출되었다.

올해 1월에 가진 신년 하례회에서는 생일을 맞은 동창들을 축하하고, 2024년 신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특별히 4월중 1박 2일 레이니어 산장으로의 하이킹, 8월 여름 야유회, 10월 북미주 지회연합회 샌프란시스코 총회에 대해 공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애틀 지회는 소규모 그룹 활동으로 합창반, 차선방, 골프반, 등산반, 사진반, 아트반을 두어 동창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St. Louis — 지회장 최혜영(86 생미)

세인트루이스 지회는 최경선(62 영문) 이사장과 부군 김승희 박사의 후원으로, 49년 간의 의료 진료 후 은퇴하는 이화 사위 김덕진 박사(정선주(68 성악) 동창의 부군)와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화 사위 이신용 박사(남진우(73 간호) 동창의 부군)를 축하하는 신년 파티로 한 해를 시작하였다. 경품 추첨을 하며,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와 결혼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은 이화 사위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지금의 아내와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 이화인의 자부심을 더욱 높여 주었으며 잊지 못하는 추억과 소원 등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최길자(65 화학) 동창과 남진우(73 간호) 동창은 지역 교회에서의 시니어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게 되었는데, 지회원들이 참석하여 축하를 해주었고,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양혜자(74 교육) 동창과 최혜영(86 생미) 동창을 통해 고국과 모교의 소식을 전해 듣고 기도제목도 나누는 등 훈훈한 장면이 연출이 되었다.

지회 설립 25주년 기념 파티 이익금 전액을 국제재단 세인트루이스 장학기금으로 보내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고, 세인트루이스를 방문한 박찬옥(88 성악) 동창, 이영민(96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 동창, 이지현(86 무용) 동창을 환영하는 모임을 하면서 즐겁고 바쁜 여름을 보냈고, 이영민 동창이 주도했던 세인트루이스 미술 박물관에서의 보자기 워크샵에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여 함께 바느질도 하고 작품 기증식에도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10월 12일에 열린 80회 정기모임에서는, 총동창회의 요청에 따라 1997년에 제정한 세인트루이스 회칙을 수정 보완하여 보냈으며, 정기모임과 진선미 모임 등 매달 모이는 모임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도서들을 나누는 북클럽도 진행하고 있다. 모임을 가진 식당에서는 동창들의 웃음 꽃으로 인해 주위에 있던 손님들이 자신들도 너무 행복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가는 일도 있을 정도이고, 특이하고 기이하다고 까지 할 수 있는 점은, 함께 참여했던 이화 사위들이 주도적으로 다음 모임을 계획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는데, 이는 우리 지회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응원군이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감사가 넘쳐나고 있다.

N. Texas — 지회장 이미리(83 도서관학)

북텍사스 지회는 2023년 5월 20일 메이데이를 기념하여 제3회 이화 자선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읍대 출신 동창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이 음악회는 이화의 정신을 계승하여 사회와 여성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열리고 있으며 약 150명의 내빈들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고 동창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 7천 불 중 4천 불을 지역의 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하였고 3천 불은 한국의 본교 국제 재단에 본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하였다.

2023년 12월 10일에는 동창들과 그 가족을 위한 연말 파티를 Lewisville 다운타운에 위치한 Prairie House에서 개최하였는데 60여명의 이화인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한 해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젊은 동창들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다양한 퀴즈쇼를 통해 대선배님들로부터 동창의 자녀들까지 모두 참여하여 웃고 즐기며 동창들이 기증한 다양한 선물을 상품으로 나누는 즐거운 시간 되었다. 특히 자선 음악회의 수익으로 수여한 지역 사회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감사 편지를 함께 나누어 보며 2024년에도 동창회와 지역 사회를 위한 행사를 더 많이 기획하자고 결의하며 한 해를 마감하였다.



Toronto — 지회장 조혜라(96 영문)

토론토 지회는 2023년 2월, 4월, 9월에 햇불회 모임을 갖고 예배와 친교를 나누었다. 예배 후 마련된 2부 순서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시 대처 방법', '즐거운 노래 · 올바른 발성법'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배움의 자리가 되었다.

한편, 토론토 한인 장학재단과 연계한 '이화여대 동창회 토론토 지회 장학금'을 수상하게 되는 장학생 시상식이 5월에 개최되었다. 기금 모금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2월에는 성영희(95 서양화) 동창의 갤러리에서 일일 찻집을 열어 맛이 좋은 차와 디저트, 그리고 다양한 생활 용품을 판매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하였다.

6월에는 동창 야유회 모임으로 친목을 다졌는데, 맑고 화창한 날에 녹음이 우거진 넓은 공원에서 사랑하는 선후배들을 기쁨으로 만나서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아름다운 행사였다. 11월에는, 캐나다 한인 전통 예술협회에서 주관한 '한국 무용가 유인희 헌정무대' 발표회에서 선배님이자 전 교수님, 그리고 영원한 이화인이신 유인희(56 무용) 선생님의 공로를 다시 한번 기릴 수 있었다. 연말 파티에서는 '인생은 영화처럼'이라는 주제로 레드카펫을 걷는 모습을 연출한 멋진 패션쇼와 즐거운 게임으로 웃음꽃을 피웠다. 특히 그동안 열심히 모여 연습한 음악 동호회인 화음회, 화관회, 기타반, 판소리반이 멋진 연주로 실력을 발휘하였다.

2023년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맞아 1월 6일에는 신년 임원 회의로 모여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기획했다. 특별히 이화동창회 토론토 지회 50 주년을 맞아 햇불회, 여름 야유회, 가을 단풍 하이킹, 연말 파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뜻깊은 한 해로 채워 나가고자 한다.



Vancouver — 지회장 배운향(85 정외)



밴쿠버 지회 동창들은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사회에 기여한 뛰어난 활동으로 방송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오유순(69 약학) 동창은 힘들고 어려운 한인 노인들을 위한 뉴비스타 케어 홈을 설립하는데 100만 불을 기부함으로써 캐나다 사회에 큰 자량이 되었으며, 한국 정부의 대통령상인 모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박혜정(82 음악) 동창은 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아 퀸 엘리자베스 여왕 주빌리 상을 수상함으로써 한인 및 이화인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새해를 맞이하여 개최한 구정 모임에서는 떡과 과일을 나누고 웃놀이도 즐기면서 풍성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냈다. 우리 밴쿠버 동창들은 동창들 개인의 기쁨을 밴쿠버 지회에 속한 모든 이화인의 기쁨과 자량으로 여기는 것이 이화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임을 느끼며 해외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보내고 있다.

Washington DC — 지회장 이지은(96 불문)

워싱턴 디씨 지회에서는 2025년 DC에서 열릴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위한 첫번째 기금 마련 행사로, 지난해 10월 맥클린 한인장로 교회에서 동창과 지역사회 한인을 위한 가을 클래식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활동중인 본교 졸업생이 포함된 연주자들의 플룻과 바이올린, 성악과 피아노, 그리고 오르간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깊이 가는 가을을 느낄 수 있었다.

12월 16일에는 'Magical Ewha 2023' 이라는 주제로 Westwood Country Club에서 총회 및 연말 파티를 개최하였다. 90여 명의 동창과 가족들이 가면무도회에 입장하듯이 준비된 가면을 쓰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동창들과 반갑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동창회 및 이사회의 회계 보고와 활동 보고가 있었고, 2024년 신입 회장으로 이지은(96 불문) 동창을 인준하였다. 이어서 2부 식사 시간에는 2023년도 지회 활동 비디오를 보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3부에서는 팀을 나누어 게임을 하며 동창들 간의 친목을 다졌다.

겨울 날씨답지 않게 포근했던 올해 1월 27일에는 김성혜(88 보건교육) 이사장 자택에서 2024년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39명의 이사 및 임원진, 그리고 동창들이 참석하여 전년도 장학사업 활동과 기부 사업에 대한 보고 및 신년 장학금 운영 방안을 모색하며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이사회는 김성혜 현 이사장의 연임을 인준하였고, 2025년 북미주 지회 연합회 총회 준비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랑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선후배 이화 동창들께

안녕하십니까,
19대 총동창회장 이명경입니다.

모교와 총동창회를 향한 북미주 지회연합회 선후배 이화 동창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동창회는, 이화 138년의 역사를 이끌어 온 진선미의 이화정신, 즉 나눔과 섬김, 봉사의 마음을 항상 되새기며 새 소망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총동창회는, 지난 2001년 시카고의 일부 동창을 중심으로 결성된 소위 '북미주 동창회 (북미주 총동창회에서 2009년 북미주 동창회로 명칭 변경)'로 인해 '북미주 지회연합회' 소속 동창 여러분께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총동창회 그리고 이화국제재단 및 모교 이화여자대학교와 오랜 기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정통성을 가진 단체로서, 총동창회 회칙에 따라 북미주 지역의 공식 지회연합회로 인정되었으며, 총동창회 동창회보의 '이화동창' 로고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모교 및 총동창회의 이 같은 입장은, 역대 총동창회장과 총장 명의로 북미주 지역 동창들께 전달된 여러 서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각 서면의 간략한 요약 및 해외지회 관련 총동창회 회칙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선후배 이화 동창 여러분,
우리는 이화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화합과 조화 속에서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총동창회는, 북미주의 모든 동창이 한마음으로 이화동창이라는 공동체로서 협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화가 한국의 '이화'를 넘어 세계의 '이화'로 도약하는데 든든한 견인차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서 반갑게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3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이명경



동창회 장학금/기금 소식

2023 모교 이화여대에 지급되는 지회별/동창 그룹별 장학금/기타 목적별 기금 현황

지회별 장학금	2023 지급액(\$)	2023 장학금 수혜자
남가주 지회	7,500	류수민(뇌·인지과학부) 외 2명
남가주 써머스쿨	7,000	Jenny Lee, Sara Fayed
뉴욕 지회	5,000	신유리(성악과 석사) 외 1명
북가주 지회	2,500	최정윤(행정학 4)
시애틀 지회	2,500	오채현(경영학 3)
알래스카 지회	2,500	심지우(화학 · 나노과학 4)
클리블랜드 지회	2,500	조나영(교육공학 4)
워싱턴디씨 지회	4,000	우지원(환경공학 4) 외 1명
워싱턴디씨 써머스쿨	2,400	Angelina Chung, Aiden Moon
휴스턴 지회	2,500	김주리(작곡 & 미술사학 4)
지회/그룹별 기금 Total : \$38,400.00		

기타 목적별 기금 기간: 01/01/2023 - 12/31/2023	지급액(\$)
간호과학대 건축기금	11,000
약학대학 발전기금	1,000
약학대학 건축기금	1,000
의과대학 연구기금	2,500
의과대학 발전기금	5,000
이화비전 2030 + 프로젝트	125,000
이화해외동창기금 (이화비전 2030 + 프로젝트)	40,000
AI 교육 Project	10,000
Ewha West Campus Project	50,000
기타 목적별 기금 Total : \$245,500.00	

지회명	장학금 및 후원 내용
남가주 지회	지역 장학금 \$5,000, 튀르키예 지진 성금 \$10,000 비영리 단체 후원금 \$4,000
뉴욕 지회	지역 장학금 \$10,000
보스턴 지회	지역 장학금 \$1,000, 선교비 \$500, 지역사회 불우이웃돕기 \$500
북가주 지회	지역 장학금 \$3,000
워싱턴 디씨 지회	지역 장학금 \$2,000, 빈민지역 아동들을 위한 책가방 기부 \$2,000
	미전도지역 선교비 \$500
시애틀 지회	지역 장학금 \$1,000, 연말 어려운 한인 돕기 기금 \$2,000
	통합한글학교 기부금 \$1,000
필라델피아 지회	해양 선교 기금(이병은 목사님) \$2,500
휴스턴 지회	지역 장학금 \$2,000, Life Tree Ministries(난민사역) \$1,200
전체 기금 Total : \$283,900.00	

연도별 총회 개최 지회

연도	지회명	지회장
1976	Washington DC	김정자(62 가정)
1977	New York	이해경(50 음악)
1978	Chicago	전신애(65 영문)
1979	New York	장한희(53 기독교)
1980	Detroit	김신형(49 가정)
1981	S. California	김성자(61 교육)
1982	Chicago	최순자(66 의과)
1983	New York	조 연(61 약학)
1984	Philadelphia	장창희(62 가정)
1985	Washington DC	한순정(58 미술)
1986	N. California	이명희(62 교육)
1987	New York	이부자(60 사회)
1988	Toronto	여정자(67 기독교)
1989	Chicago	최경혜(60 법학)
1990	S. California	이희성(60 영문)
1991	N. California	최충자(62 사회)
1992	Detroit	김정숙(62 의과)
1993	Houston	임예자(65 사학)
1994	New York	임병대(60 교심)
1995	Washington DC	오성미(64 영문)
1996	Boston	김경애(70 의학)
1997	Toronto	정인영(68 물리)
1998	Atlanta	김은숙(68 사학)
1999	Chicago	윤미혜(64 사사)
2000	S. California	김대훈(60 화학)
2001	Detroit	차승순(70 기약)
2002	Orlando	하명숙(66 체육)
2003	N. California	강영자(64 기독교)
2004	Houston	김성혜(72 식영)
2005	Cleveland	이선희(70 교심)
2006	Toronto	강선희(67 교육)
2007	New York	최성남(70 약학)
2008	Seattle	이정형(63 약학)
2009	Denver	이미옥(68 국문)
2010	S. California	오명애(74 장미)
2011	Boston	조수현(76 수학)
2012	Vancouver	강유순(67 약학)
2013	Washington DC	오혜경(72 영문)

연도	지회명	지회장
2014	N. California	제갈숙경(79 기약)
2015	Atlanta	김정희(79 약학)
2016	Houston	김명옥(75 경영)
2017	New York	박영숙(86 경영)
2018	Toronto	박현주(89 물리)
2019	Seattle	신경림(80 장미)
2020	N. Texas	신동진(85 섬예)
2021	Detroit	황수영(89 화학)
2022	S. California	정현숙(87 체육)
2023	Boston	김지영(82 교육)
2024	N. California	이영완(81 정외)

2024 북미주 지회장

주	지회명	지회장
AK	Alaska	김명순(62 간호)
CA	N. California	이영완(81 정외)
CA	S. California	조혜진(89 장미)
CO	Denver	장문선(94 도예)
GA	Atlanta	차희숙(77 체육)
HI	Hawaii	이상희(90 불문)
IL	Illinois	서석영(94 정외)
MA	Boston	공정원(83 영문)
MD	Baltimore	이진숙(70 식영)
MI	Detroit	오주리(82 섬예)
MN	Minnesota	김정은(90 체육)
MO	St. Louis	최혜영(86 생미)
NY	New York	김영신(88 독문)
OH	Cleveland	허선우(04 회판)
OR	Portland	한나리(92 체육)
PA	Philadelphia	조경숙(81 의과)
TX	Houston	양영희(93 조소)
TX	N. Texas	이미리(83 도서)
WA	Seattle	이재경(80 과교)
DC	Washington DC	이지은(96 불문)
Canada	Montreal	김명원(92 수학)
Canada	Ottawa	황명희(93 영문)
Canada	Toronto	조혜라(96 영문)
Canada	Vancouver	배윤향(85 정외)

2024 'EWHA, Shine in the Golden State!' 참가 신청서

이름	한글		영문	
거주지 주소	Street			
	City		State	Zip
연락처	Cell Phone		Email	
소속 지회		졸업 학과		졸업 연도
동행자 수	본인 제외	명	동행자 이름:	

행사 일자	행사 내용	참가비**	인원수	합계
10/24(목)	총회 참가 등록비*	\$30		
10/25(금)	아침 식사(세 가지 메뉴 중 한 가지 선택)***	\$30		
	오전 만남 'Line Dance I'	Free		
	오후 만남 'Wine Tasting'	\$45		
	총장님과의 만찬 (세 가지 메뉴 중 한 가지 선택)****	\$150		
10/26(토)	아침 식사(세 가지 메뉴 중 한 가지 선택)***	\$30		
	오전 만남 '국민체조와 Line Dance II'	Free		
	오후 만남 'Afternoon Tea Party' Botox Party 와 함께. https://www.persimmon.life/ 에서 등록하시면 Botox Provider 가 Afternoon Tea Party 중에 시술함.	\$30 (Botox 비용은 개인 부담)		
	북미주 지회연합회 대만찬 (두 가지 메뉴 중 한 가지 선택)****	\$150		
10/27(일)	아침 식사(세 가지 메뉴 중 한 가지 선택)***	\$30		
관광 신청	10/25(금) San Francisco 관광 점심 식사 - Swiss Louis Restaurant @ Pier 39	\$100 + 점심 (식비 개인 부담)		
	10/26(토) Winery 관광 Wine Tasting at Beringer Winery w/ Picnic Lunch, 이외 최소 두 곳의 Winery 방문	\$150		
골프 나들이	10/25(금) 북가주 골프회와 단독 구성하여 의논할 예정	추후 결정		
	10/26(토) 북가주 골프회와 단독 구성하여 의논할 예정	추후 결정		
총회 참가비 총액 **				

*8 월 31 일 전까지 참가 등록 신청 시 참가 등록비 면제

**참가비가 결제되어야 등록이 완료되므로 참가비는 반드시 체크로 써서 우편 발송 요망

*** 아침 식사 메뉴 선택(원하는 메뉴 칸에 본인과 동행자 이름을 써주세요.)

10/25(금)	All American		Healthy Choice Scramble		Eggs Benedict	
10/26(토)	All American		Healthy Choice Scramble		Eggs Benedict	
10/27(일)	All American		Healthy Choice Scramble		Eggs Benedict	

**** 10/25(금) 저녁 식사 메뉴 선택(원하는 메뉴 칸에 본인과 동행자 이름을 써주세요.)

Ginger Soy glazed Sea Bass		Beef braised Short Rib		Herb crusted Cauliflower Steak (Vegetarian 메뉴)	
----------------------------	--	------------------------	--	--	--

**** 10/26(토) 저녁 식사 메뉴 선택(원하는 메뉴 칸에 본인과 동행자 이름을 써주세요.)

Combination Entrée of Baked Sea Bass and Grilled Filet Mignon		Roasted Butternut Squash and Mixed Mushroom Wellington (Vegetarian 메뉴)	
---	--	--	--

<p>참가 신청 마감 9/15/24</p> <p>조기등록 마감 8/31/24 (등록비 면제)</p>	<p>신청서와 check 을 함께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세요. (Check 의 메모 란에 반드시 이름, 졸업연도, 학과, 지회를 기재해 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yable to: Ewha Norcal • 주소: Yvette Lee, Yvette Lee Law Group 1290 Kifer Rd., Suite 309, Sunnyvale, CA 94086 • 온라인 등록: 북지연 웹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QR Code 사용 (온라인 등록도 참가비는 Check 을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p>호텔예약마감 9/15/24</p>	<p>San Francisco Airport Marriott Waterfro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1800 Old Bayshore Hwy. Burlingame, CA 94010 • 온라인 예약: QR Code 사용 • 전화 예약: Ewha Woman's University Reunion • 객실 가격: \$159/room (4 인까지 허용, Rollaway Bed 제공 안됨.) 	
<p>공항-호텔간 교통</p>	<p>SFO 공항에서 3 마일 거리(무료 셔틀 버스 운행)</p>	

참가 문의: ewhanorcal20@gmail.com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일정

10 월 24 일(목)	03:00 PM – 10:00 PM	호텔 체크인 및 총회등록
	06:00 PM – 07:50 PM	북미주 지회연합회 지회장 회의
	08:00 PM – 10:00 PM	북미주 지회연합회 정기 이사회

10 월 25 일(금)	07:00 AM – 08:30 AM	아침 식사
	10:00 AM – 11:00 AM	오전 만남 'Line Dance I'
	01:00 PM – 02:30 PM	오후 만남 'Wine Tasting'
	04:10 PM – 05:00 PM	이화 합창 연습
	05:00 PM – 06:00 PM	각 지회 탤런트 쇼 리허설
	06:00 PM – 10:00 PM	총장님과의 만찬 및 각 지회 탤런트 쇼
	10:10 PM – 12:00 AM	Karaoke

10 월 26 일(토)	07:00 AM – 08:00 AM	아침 식사
	08:00 AM – 10:00 AM	총회
	10:10 AM – 11:00 AM	오전 만남 '국민체조와 Line Dance II'
	01:00 PM – 02:30 PM	오후 만남 'Afternoon Tea Party' (along with Botox Party)
	04:10 PM – 05:00 PM	이화 합창 연습
	05:00 PM – 06:00 PM	리셉션
	06:00 PM – 10:00 PM	북미주 지회연합회 대만찬

10 월 27 일(일)	07:00 AM – 08:30 AM	아침 식사
	08:30 AM – 09:30 AM	예배
	09:30 AM – 10:30 AM	총장님과의 대화
	10:30 AM –	작별 인사 및 체크아웃

관광/골프 안내

일일 관광	10 월 25 일(금) 09:00 AM – 01:00 PM	*참가비 \$100(점심 식사 비용 개인 부담) • San Francisco 관광: China Town, Little Italy/North Beach, Union Square, Golden Gate Bridge, Golden Gate Park, City Hall of San Francisco
	01:30 PM – 03:30 PM 04:00 PM	• Lunch: Swiss Louis Restaurant @Pier 39 • 호텔 도착
	10 월 26 일(토) 10:10 AM – 04:00 PM	*참가비 \$150(간단한 점심 & 간식 제공) • Winery 관광: Wine & Food Pairing at Beringer Winery w/ Picnic Lunch 및 Napa 지역내 다른 두 개 Winery 관광
골프	10 월 25 일(금)	장소 및 가격 추후 결정
	10 월 26 일(토)	장소 및 가격 추후 결정

*모든 참가비는 1인 기준이며, 일정이나 가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2024년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

Korean American Community Services

KACS
Annual Report 2022-2023

■ 명예 회장 : 김희식 (사회사업과, 61년 졸업) ■ 관장 : 유니스 전
■ 이사진 : 이문희, 김수잔, 양재학, 노유미, 김정연



실리콘밸리한미봉사회는 1979년 창립되어 45년간 실리콘밸리 및 베이지역 한인과 이민자들을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 시니어 웰빙 프로그램, 학부모 및 청소년 대상 세미나, 문화 행사 및 시민 참여 기회 제공과 같은 다양하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 사단법인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입니다. 현재 봉사회는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매해 8,000 건의 사회복지 상담 제공
- 매년 15,000회 이상의 시니어 영양 점심 제공
- 매년 25,000 건 이상 시니어 헬스 웰니스 프로그램 제공
- 매달 200명 대상 시니어 아파트 홈 방문 프로그램 제공
- 저소득 대상 \$300,000 가까운 재정지원
- 20,000 개 이상 코비드 PPE 아이템 배포
- 100명 이상 북가주 한인 단체장 및 리더 대상 매년 포럼 및 타운홀 미팅 행사 제공

PROGRAMS

- 소셜 서비스
- 시니어 영양 점심 프로그램
- 시니어 헬스 웰니스 프로그램
- 시민 참여 프로그램
- 문화행사
- 커뮤니티 발전 구축



(408) 920-9733 | info@kacssv.org | www.kacssv.org
136 Burton Ave, San Jose, CA 95112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여
북미주 동창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이화인들의 열정과 결속이 빛나는
특별한 모임이 될 것을 기도하며 축하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이영완(81 정외)**

**Yvette Lee, Attorney at Law
Yvette Lee Law Group
Immigration Law**

**Yvette Lee, CEO
ACE Property Management, Inc.
Association/Rental Management**

**1290 Kifer Rd, Suite 309
Sunnyvale, CA 94086**



이화여자대학교
EWHHA WOMANS UNIVERSITY

김(이)해연 Jenny Kim (Hae Yeo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1976년 졸업
- 2009년 월간 [한국수필] 신인상 수상
- 2009년 ~ 2013년 미주 <한국일보> '여성의 창' 필진으로 활동
- Santa Clara Country Art Fair에서 대상과 장려상 수상
- 2010년 10월 27일 - 1회 개인전
<Butterfly - 나비 그 흔적들>, Aegis Gallery, Saratoga, CA
- 2020년 2월 4일 첫 작품집 출간 - "나비, 세상 속으로 날다"
- 2020년 2월 4일 서울에서의 첫 개인전 - 한국 잡지협회 M미술관
- 2014년 5월 부터 2024년 현재까지
<San Francisco Journal>에 [김해연의 글과 그림]으로 연재중
- 2024년 1월 31일 두 번째 작품집 "사랑, 그 소중함" 출간
- 2024년 1월 31일 ~ 2월 28일 사단법인
<행복한 미술> 초대 세 번째 개인전 'Wonder Woman'



이화여자대학교
EWHHA WOMANS UNIVERSITY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즐겁고 따뜻한 시간이기를 바라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진희(71 독문)



이화여자대학교
EWHW WOMANS UNIVERSITY



양승희(73 사학)

- 2023 영원한 이화인
- Chelina Hwang Acupuncture & Herbs 원장
- Maxpros Electronics 매니저
- 2006-2010 이화여대 북가주 지회장 역임
- 2023-2024 산호세 파이오니어 라이온스 클럽 회장
- 2024-2025 글로벌 어린이재단 SF지부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아름다운 항구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됨을 축하 드리며, 북가주 지회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HELPING FAMILIES
CREATE WEALTH
THROUGH REAL ESTATE.



Our Services



Residential 주택

Helping Home Buyers and Sellers



Commercial 상업

Business, Retail Land, Hospitality
Multifamily, Mixed Use, Office



Real Estate Investments 부동산 투자

Home Remodeling, Passive Income
Strategies with Variety Type of
Investment Strategies, Fix and Flip



Agent Training & Business Planning 에이전트 트레이닝 전문

Specializing in Coaching and Training
Real Estate Professionals

About Us

At Lifetime Realty, we bring two decades of unwavering dedication to the real estate industry in Southern California. Our commitment to serving both clients and the community has positioned us a leading brokerage in the region. We firmly believe in the power of real estate as a vehicle for wealth creation and are wholeheartedly dedicated to helping our clients achieve their real estate goals. We are committed and we strive to make every interaction a positive and successful experience for our clients

문의 전화 주시면 한국말로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Contact Us



Tommy Kim, CEO

714.728.6564

tommy@lifetimerealtygroup.com



Jamie Kim, CFO

714.757.1870

jamie@lifetimerealtygroup.com



Lifetime Realty

714.363.3888

140 S. Flower St. Suite 200 Orange, CA
www.lifetimerealtygroup.com

CHO & KIM, PC

U.S. Immigration Law Firm



Located in Silicon Valley, CA, we specialize in providing comprehensive U.S. Immigration Services.

- 01 /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EB-1(a)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EB-1(b) (Outstanding Professors/Researchers)
EB-1(c) (Multinational Managers or Executives)
- 02 / O Visa
E1/E2 (Treaty Traders/Treaty Investors)
L-1 (Intra-company Transferees)
H-1B (Specialty Workers)
J-1 Waiver

김(박)수현 변호사
(90 법학)
Soo H. Kim, Esq.

조행선 변호사
Andy Cho, Esq.

www.CaliminLaw.com
SooKim@CaliminLaw.com

(408) 909-5293

2570 North 1st Street.,
Suite 200 San Jose,
CA 95131

SERVICE FOR COMPLIANCE,
SATISFACTION & EXCELLENCE

JENNY M. CHO, CPA 조미정 공인 회계 사무소

조미정 회계사(86 정외)

☎ Phone: (925) 803-0200

✉ jennycho.cpa@gmail.com
admin@jchocpa.com

☎ Fax: (925) 803-0204

🏠 6602 Owens Drive. Suite 200
Pleasanton, CA 94588





OHGANE
KOREAN CUISINE
韓食

한순희(68 교육공학)



한식이 그리운날

Alameda 2211 S. Shore Center #160 +1(510) 775-7538

Oakland 3915 Broadway +1(510) 594-8300

Concord 1671 Willow Pass Road +1(925) 798-9292

손님대접 각종파티 비즈니스미팅 케더링 ohgane.com

멋진 이화의 날, 머리에 꽃을 달고 오세요!
샌프란시스코 식탁에는 이화 향기 가득하리
이화는 영원하리!



'주님의사랑' Oil on Canvas 24" x 30" Painted by Simjoo Yoon

- 강학희(72 교육)
- 권경연(63 음악)
- 김경년(63 불문)
- 김명수(74 약학)
- 박종순(72 서양)
- 박주리(89 교육)
- 윤심주(73 서양)
- 윤영숙(65 불문)
- 최영자(67 식영)
- 정은숙 버클리 문학협회 부회장

버클리 문학협회 회원

이화

세상을 향하여
날개를 펴고 나르는
이화여 영원하라



'세상을 향하여' Photo by Young S Yune

이명희(61 약학)
김정숙(67 교육)
이재희(71 신방)

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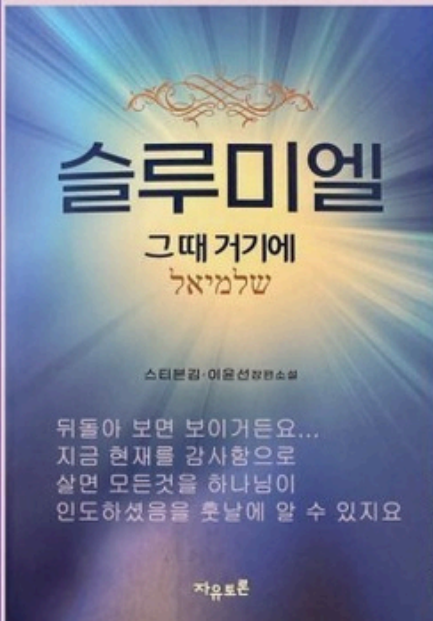
아침이 열리는 소리
빛으로 다가온 소리
우리의 짧은 시간들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채워준
이화, 사랑합니다



'아침이 열리는 소리' Water Color 11"x15" Painted by Young S Yune

윤영숙(65 불문)
윤진숙(67 생미)
윤성숙(69 서양)

꿈과 비전을 심어준 이화,
내 마음의 고향 북가주
사랑합니다



스티븐 김 · 이윤선장편소서

뒤돌아 보면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를 감사함으로
살면 모든것을 하나님
인도하셨음을 훗날에 알 수 있지요

자유로본

이윤선(86 교육)
스티븐 김



대한민국 한방의 힘!!
한풍제약 Since 1973
면역과 기력충전의 최강자!
유네스코 기록 유산 경옥고를
만나 보세요



www.HPUSA.SHOP

한풍제약
한풍USA 지사장
조윤경(92 종교음악)
(650)550-8760

Member FDIC EQUAL HOUSING LENDER SBA Preferred Lender

Bankers.
Experts.
Neighbors.



Follow us on
f i in

bankofhope.com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회연합회
샌프란시스코 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전종구(67 사회사업)

**MEDICARE
FREE
CONSULTATION**

65세가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청부터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HMO, PPO)
메디케어 보조 플랜
(Supplement)
처방약 플랜(Drug Plan)

Life & Health
Implant & 치과 치료
Annuity & IRA



SUKHEE JUNG

Life & Health Plan Specialist
License No. 4067832

510:909:3243

정숙희(91 의학)

sukkeylife3@gmail.com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회연합회
샌프란시스코 총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북가주 지회 회보팀 일동

축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2024년 샌프란시스코



운영숙(65 불문)
 김영주(70 영문)
 김준자(70 의학)
 이금재(74 가정)
 오윤경(70 입학 국문)
 이명혜(64 입학 사회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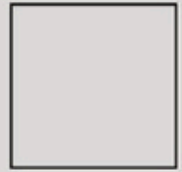
까투리 무용단
 단장 김옥자



산타클라라 한미노인봉사회
 회장 최경수

Ewha Norcal Association

1290 Kifer Rd., Suite 309
Sunnyvale, CA 94086



To: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미주 지역의 이화여자대학교 동창 모임으로서,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역 동창회를 대표하는 공식 명칭입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본교 총동창회에 등록되어 있는 36개 북미주 지회들의 연합을 의미하며 매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고 회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동창 여러분께서는 각 지역의 지회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진선미'의 이화정신을 계속 간직하고 이화인으로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편된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공식 홈페이지와 각종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긴밀히 연결된 이화인의 힘을 느끼고 교류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whana.org